

## 하나님의 초청

성경말씀: 사55:1-6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미래를 기록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방인들의 미래도 대언한다.

40장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사역,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주제가 된다.

53장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사역이 주어지고 54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화평의 언약이 나온다.

그리고 55-56장에서 하나님의 초청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초청 요약: 나오라(1절), 들으라(3절), 찾으라(6절).

누가 초청하면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하나님이 초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 나오라(1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1).

갈증이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 죄인들이 느끼는 부족함, 구원에 대한 갈증 ★★★

구원 받은 사람들도 의로 인하여 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될 수 있다(마5:6).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가장 큰 필요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이 필요는 매일 있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육체와 영혼의 죽음

그래서 목마른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죽도록 갈망한다는 뜻이다. ★★★

시42:1-2, 요4장 10-14절의 수가성의 여인

목마른 자는 다(everyone) 오라고 하신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색, 언어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임을 보여 준다. 아마존 강의 미개인에게도 해당된다. 아프리카 밀림의 식인종에

게도 해당된다. 하바드 대학의 교수에게도 해당된다. 이명박 대통령, 이견희, 정몽구, 빌 게이츠

물로 나아오라: 없는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넘치는 물로 나아오라. 요7:37-38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다.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신다.

가난한 자도 오라: 물질적인 가난함 뿐만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는 오라.

포도즙과 젖을 사라: 물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물질(주 음료, 잔치 음료, 주식),

돈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무료로 사라: action의 주체는 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모두 무료이다.

특별히 혼을 구속하는 것은 무료이다(시49:6-9).

세상의 우물은 파려면 돈과 노력이 든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

왜 빵이 아닌 것을 위해 허비하느냐?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일에 왜 인생을 허비하느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일을 위해 헛되이 수고하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사람의 혼은 재물, 명예, 영화, 학식, 인생의 자랑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야 기름진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 갈증이 있는가?

영혼의 만족이 있는가?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섰는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

### 들으라(3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살 수 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신6:4,5

마귀의 계략은 보이는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표적을 보여 주소서.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미 본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영존하는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심: 구속자, 구원자, 보호자, 친구, 아버지가 되겠다.

오는 자, 듣는 자 모두와 이 언약을 맺겠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와도 맺는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공홀(시89:3-4),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홀을 주신다.

여기서는 다윗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보여 주고 있다(4절).

이 세상의 민족들이 메시아를 향해 달려 나올 것이다(5절).

왜 그럴까? 유일하게 그분만 부활하신 분이시다(행13:34-39).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가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당신은 듣고 있는가? ★★★

### 찾으라(6절)

믿음을 갖는 것을 종종 하나님을 구한다(찾는다).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함

왜 찾으라고 할까?

없기 때문에 구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난다.

그래서 구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그분을 잃어버린 세대: 미국을 보라.

하나님의 호의를 원하면 구해야 한다.

일반적인 호의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물, 공기, 햇빛 등

그러나 그분의 특별 호의 즉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구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없다.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롬10:).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요3:16)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파워(요1:12) 인생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얻는다.

그런데 기회는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있다. 그 제약 속에서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언제: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구해야 한다. ★★★

그게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이것을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오늘이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는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기회가 끝이 난다.

그분께서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을 불러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다.

이것을 놓치면 기회가 지나가고 만다.

사도 바울 당시의 벨릭스 총독(행24:24-27)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와 대면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떨었다.

적당한 때가 오면 너를 부르리라.

그때는 그에게 영원히 오지 않았다.

죄: 내리막 언덕, 흘러가는 강, 자라나는 나무, 죄는 날이 갈수록 강해진다. 마음 더 딱딱해진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 낭떠러지의 돌, 점점 가속력이 붙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찾아야 한다(고후6:2) ★★★

### 결론

당신은 목마른가?

헛된 일로 인생을 허지 않는가?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는가?

듣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